

그리스도 왕 대축일

기도서 P. 481 A해

제1독서 (에제 34, 11-12, 15-17)

제2독서 (코린전 15, 20-26, 28)

복 음 (마태 25, 31-46)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상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왕 의 긍 지

박 종 상 신 부

“...만민의 왕이여” 하는 성가를 외치며 오늘을 맞습니다. 한 순간의 기쁨을, 아니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크게 외쳤지요. 잠깐듯 맞듯 아스라이 보이는 인간의 아둔한 머리는 한편으로 온갖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 확실히 매력있는 말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는 물론 온갖 권세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그분께서도...? 분명히 말하거나 그리지는 않지요. 지상에서 생활하신 예수님께서 굶으셨다는 기록은 없으나 가난하셨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참고... 루가 2, 7. 마르코 6, 3. 요한 19, 23>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이들이 따랐다고 하나 영화나 권세를 누리셨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루가 22, 24~27. 마르코 14, 50> 그렇다면...?

“왕” 묘한 글자입니다. 한문 표기법 “王”을 보십시오. 가요로 그어진 세줄은 분명히 하늘과 사랍, 그리고 그 아래인 대자연을 지칭함이 아닐까요? 그 하늘이나 사람, 대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게 아니라, 왕이 되려면 세줄로 그어진 한 획, 그것도 위에서 아래에 까지 닿는 한 획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왕”은 사람이든, 그외의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늘(절대자, 아니면 하느님)과 사람들, 그리고 대자연을 하나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면 지극히 적어도 서로 간에 상통이라도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왕은 천하를 한 가족으로 본다”는 동양 사상도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후한서... 王者以四海爲家> 이런면에서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지혜나 찬양의 말로 표현키 어려운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복음뿐 아니라 성경의 어느 곳이라도 펴고 읽어봅시다. 장수와 시간은 물론 어느 경우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 상호간을 맺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찌고 정의로움을 앞세우지, 내심으로 자기 이익만을 꾀하지 않고 말입니다. 또 그분보다 어느 누가 하늘(하느님 또는 절대자)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오 13장 전체. 루가 19, 11~27. 마태오 25, 1~13. 마르코 16, 1~18>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꾸밉니다. 한 손에는 지구의를 다른 손엔 왕권을 쥐시고 왕관을 씌워 드리지요.

“왕”-이 말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 갑니다. 일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화롭든지 혼란한 시대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꼭 존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더 말할나위 없지요. 그분이 하셨던 일은 대대로 전해지는 “왕”들을 통해 계승됩니다. 누구?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일부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지요.

“왕”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말의 주인공이 당신이라고 밝혀진 이상 우리의 할 일은 뻔한 것이고 우리의 긍지와 이상은 누가 당해내겠는가? 왕으로서 첫째 하느님과 사람들이 상통하도록 합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융화되고 하나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바오로의 대자연의 구원도 따르게 될겁니다. <참조 코린토 전서 15, 22>

다시 말해 나로 말미암아 모든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교인의 긍지를 지닐 때, 그리스도는 왕으로 세상에 군림하실 겁니다. <성심여교 중교강>



내 아들

하나로 족하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더 잘 죽고, 더 잘 쓰기란 어려운 일이다. 마침 죽음을 묵상하는 이 11월, 위령의 달을 보내며 1970년 11월 13일의 소리를 듣는다.

故 전태일 선생이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온 몸을 불살라 전국의 6백만 노동자를 대신하여 제물로 봉헌한 날이 바로 1970년 11월 13일이었다.

가난이 원수라서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했으며,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23세의 청년은 <가난과 정의와 동료와 이웃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줄 알았다>. 비록 구두담이·신문팔이·피부공장의 재단일로 가족과 함께 수제비와 풀빵, 가난을 씹고 살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애썼던 것이다.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남겨드리지 못한채 훌쩍 어머니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만큼보다 더 값진 한마디를 선물하고 가버렸다.

—「어머니, 담대하셔야 합니다. 제 뜻을 아실테니 제가 다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 해주세요. 어떠한 유족과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 어두운 근로자들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앞길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 훌륭한 아들의 유언을 외면하지 않은 장한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오늘날<근로자들의 어머니> 뭉을 다 해내고 있다. 연행되기와 옥고치르기를 절대지 않는 그 어머니는 이렇게 호소한다.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라. 내 아들 하나로 족하다.」

그런데 아직도.....

숲 정 이 산 채



「이웃돕기 해야지...」



“릴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최 남 수 (아쁠로니오)

교형 자매 여러분!
한국의 구라 사업은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병은 우선 병이니까 치료해야 하고 투약해야 하며 입원해야 하고, 설사 병이 치유 되었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정형 및 성형 수술로서 교정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릴리 회원들의 사랑의 손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모든 나환자들에게는 의료사업·교육사업·계몽사업·자립대책 사업 등을 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재원의 대부분이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나환자라고 우리의 국민이 아니고 우리의 민족이 아니며,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까? 8. 15 해방후와 6. 25 동안 등으로 인한 민족적 시련기에는 부족한 한국의 경제적 형편상 부득이 외국의 원조에 의존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중진국 대열에 들어 섰다고 자부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아직도 한 핏줄이요, 한 형제이며 한 민족인 나환자들을 우리 힘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에만 의존 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성의지만 우리의 핏줄인 나환자들을 우리 힘으로도 도와 보자는 숭고한 민족애의 운동이 1970년 1월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아리따운 아가씨들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게 바로 릴리회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이 나환자 돕기 후원회인 릴리회가 이제는 회원들이 불길처럼 번져 국내의 200여개의 기관에 수만명의 회원이 협조하고 계시며 많은 뜻있는 분들의 공명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이들이 다 부유층이 아니며 또한 종교인도 아닙니다. 그중에는 남의 부엌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소위 가정부도 있다는 눈물겨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로지 한 형제 한 민족을 적은 성의지만 사랑해보자는 숭고한 인류애를 지닌 분들의 모임인 것 뿐입니다. 이러한 릴리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몇십원도 한 갑의 담배값으로도 만족합니다. 한 갑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산더미같은 유조선을 띄운다는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전주교구 관내에도 이러한 고통을 받고있는 형제들이 살고있는 곳이 비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충분한 사랑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비스값 몇푼때문에 등교길 귀여운 자녀의 고운 얼굴을 찌푸리게 해야하는 힘겨운 분에게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담배 한 갑, 밥 한공기라도 기쁘게 회사에 주실분은 릴리 회원이 되어서 협조해 주십시오.

릴리회는 초(超)종교적입니다. 릴리회가 지원하는 대상은 오직 나환자들입니다. 종교와는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는는 우리 전주교구에 릴리 회원이 부족 하다는



“위령 성월에”

장 그리스티나

머장같은 하늘엔
안개비만이 뻗히고
차거운 바람만이
가슴속을 넘나드는 이승의 뒤안길.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곳
정성으로 다듬으며 살아온 남들
이제 그 자리엔
넋우침과 아쉬움만 가득 채이고
불사른 육신은 한줌의 재.

술한 골짜기와
산과 바다를 건느다 지친 피곤속에
머~연 본향어로의
검검이 이어진
유폐된 회길을 찾으며
뚝뚝어 허물을 통곡한다.

지금은 어드메서
서러운 별이 되어
그 넓은 허공을 헤메고 있을
먼저 길 떠난 나그네여!

주님이시여!
생명의 잔으로
묵타는 영혼을 적시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빛을
주옵소서!

〈군산 문율동 천주교회〉

느낌을 가져서 많은 교형 자매들께서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자립사업·교육사업·계몽사업 등에는 지원되지 않고, 나환자들의 끊어진 손발에 의수족과 후유증으로 달모된 눈썹 등을 재생시켜 사회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미모 이식 성형수술에만 여러 회원들이 푼푼이 모으신 정성을 지원해줍니다. 가장 값싸다고 생각하는 이 사업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회원이 되실분은 주소, 성명을 명기 하시고 성금을 가톨릭 센터내에 있는 인성회 최남수 앞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교구 인성회 사무국장〉

수입악기 시판개시!

- 취급품목
- 피 아 노 : ① 화려한 선율의 결정체 GORS & KALLMANN(독일)
 - ② 122년의 전통과 우아한 품위의 WURLITZER(미국)
 - 전자올겐 : 전자올겐의 대명사 HAMMOND(미국)

서진 피아노 전주대리점 전화 ②4690

(구 삼남극장 사거리)



11월 결의

우리는 1978. 11. 13~16까지 서울 상지회관에서 「정서에 나타난 가난한 이들의 고뇌와 희망」이라는 주제하에 신학적 반성의 모임을 가졌다. 이는 사제로서 이웃의 고통과 고통, 그리고 어두운 현실에 대한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반성 성찰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을 위한 삶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남을 위한 삶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듯 못한 현실을 신앙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말살되어 가는 학원의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의 의사표시는 현실에 요청되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하고 양심적인 의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여, 구속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주도로 빚어진 농민의 노획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가톨릭 농민회에서 조사 요구한 쌀 생산비를 보상하라.
3. 문공부에서 발송된 교회의 정기 간행물에 대한 증지 통보들은 복음의 선포와 강론의 연장인 교회 고유한 신앙 표현을 제한 내지 말살하려는 것이 분명하며, 이는 종교자유에 얽연한 침해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당국의 저의를 고발하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로 결의한다.
4. 우리는 자유언론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언론인들의 계속적인 투옥의 현실을 바라보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현실을 통탄하며 이로 인해 투옥된 언론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5. 형 집행정지 취하로 재구속된 성직자 등 양심수인들과 인간 기본권을 유린당하는 모든 형제들의 수난에 적극 동참한다.
6. 인간 기본권을 유린하는 제도는 철폐되어야 하기에 78년 사제단 4월 선언을 재확인하며, 현 체제하에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도 의미가 없다.

1978년 11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성명서

1978. 11. 5 한국 천주교 평형 상임위원회는 최근 가톨릭 액손 단체에서 활동하는 신도들에 대한 미행, 감시, 연행, 연금, 구속 등 사례를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가톨릭 농민회 및 가톨릭 노동청년회 정성현, 유남산, 박명근, 정인숙, 이 총자 등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을 시정하여 공정한 공판으로 무죄 석방하기를 바란다.
2.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 감사 유진훈에 대한 미행 감시와 연금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이며, 그의 종교적 및 양심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이밖에도 교회 안팎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의 교회 활동을 범죄시 또는 용공시하거나 협박·모략·중상·분열 행위가 없도록 촉구한다.

1978. 11. 5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12차 상임위원회

요심이 (278) 김병오



개업안내

둔돌동 천주교 입구에 유미 미용실 설치 교우 여러분의 성원 바람

유미미용실

대표: 최완선(올리바)
전화 ② 3693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배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개업안내

지내 중앙동에서, 재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희 (가브리엘)

☎ 2-6222 (진북신문 사거리)

에이시 양복점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번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고아오스딩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효사상을 지향하는 호도 관광의 선구자 노후 노약자 우대

◦ 남국의 진풍경 ◦ 밀감의 원산지
항공편과 호화여객선 카레리호 결
용으로 제주도 (3박 4일)

매주 토요일 14:00출발 수안보 온
천과 고수동굴·천동굴(1박 2일)

부곡온천과 해인사·성유굴·백암
온천(2박 3일)

설악산·한려수도(2박 3일)

천주교 성지순례

최신형 관광버스 전세 환영

□ 기타 국내관광 문의환영

□ 호도관광 지정업체

삼남관광여행사

삼남관광주식회사

☎ ③ 4000 ④ 0994

② 6006

대표이사 한 상 오

관광과장 범 석 배(며또)

☆ 사진에술 창조의 집 ☆

현대칼라 특약점 현대카메라 D·P점

現代人은, 現代칼라로,
現代카메라 D·P점에서
현상·인화·확대·카메
라 대여
교우님들께 특별할인 협
니다



T. ③ 6360

(전주 동양아파트 정문앞)

代表 홍성조(그레코리오)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목교서 연수회...29일<수> 오전 10시 반, 가톨릭센터
대상: 교구내 자제, 수도자, 각 본당 사도회장, 교구 산하 단체 기관장, 교구단위 제단체장
2.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 감사제...한국 가톨릭 농민회 주최
※ 오남지역...27일 오후 2시~28일<화> 정오, 광주 제립동 성당, 미사 주례...김재덕 주교
※ 교구내 농사짓는 교민자매 및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11월 정의평화 기념미사...29일<수> 오후 7시 30분, 중앙성당, 주례-김재덕 주교님
※ 전주지대 본당은 당일 미사를 없애고 이 미사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시기 바람.
4. J. O. C 가톨릭 노동청년회 위령미사...11월 30일<목> 오후 8시, 중앙성당내 지도신부 사무실
지향: ①금년에 세상을 떠난 회원들과 회원들의 부모들과, ②노동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혼들을 위해
5. 대림절 묵상회...12월 1·8·15·22일 매주 <금>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대상: 젊은이들(특히 직장인들은 환영함) 지도: 법석규 신부님
※ 금년도 성탄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슬라이드를 통한 묵상 및 대회의 광경을 마련했습니다.
6. 레지오 마리에 꼬미시움 직속 빠리시디움 간부회의...12월 2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에서
□ 동민회 연수회(농촌지도자)...12월 7<목>~10일<일>, 가톨릭센터, 회비-2,500원
※ 아직도 신청을 못한 본당은 29일 사목교서 연수회시까지 사도회장님이나 신부님께서 등록해 주세요.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3874 보좌 신부 오승영
보좌 신부 이영배
사도 회장 이복석

1. 미사시간 변경: 27일부터 저녁미사: 오후 7시 30분
 2. 청년 합창단: 26일<일> 저녁 8시
 3. 성심부녀회: 1<금>일 오전 11시
 4. 성탄 영세식: 12월 16일<토>
 5.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하세요
 6. 전례담당(공식미사)
26일: 복사-김옥기, 양생수, 해설-함문권
3일: 복사-박영근, 임주택, 해설-장남수
- 지난주 봉헌금: 177,965원

(노송동)

전화 ⑧7032 주임 신부 공권영
보좌 신부 김용성
사도 회장 김성록

1.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11월 30일 축하드립니다.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12월 1일(어머니)미사 후
5. 애령회 창립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각 가정의 대표 1명씩 꼭 참석하세요
6. 본당 자모회 탄생: 회장-서태미사, 부회장-양베로니카, 박영리사매, 총무-최안젤라, 서기-최프리스카
7. 구역회장 임명: 중노1가(1구역)-박방지가, 중노1가(제2구역)-안모니카, 인후동-전베드로
8. 청년회 피정: 12월 3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9.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진복회 월례회: 오늘 미사후 제1회 모임에 참석바람
 2. 젊은이 "한마음" 창립총회: 화요일 오후 7시미사 후
회원과 뜻있는 젊은이 참석 바람
 3. 공소판공: 28~29일-내동리, 30일~1일-동산촌
4일~5일-동산촌, 7~8일-전달리
 4. 본당판공: 금암동·송천-18일~19일, 덕진·팔복-
20~21일 기타-22~23일, 시간: 9시~12시, 오후
3시~6시, 8시~9시
시간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분실물 해설대에서 찾아가세요
 6. 성탄맞이 대접소: 12월 3일
비·결례·털이계·잡지참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11,58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가을 판공성사 일정: 오전 10-12시, 오후 3시-5시
5일<화>-다가동·태평동 6일<수>-중앙동·교사동
진복동 7일<목>-완산동·화산동·기타
9일~10일<토·일>한성·직장인 미사전후
※ 제남자에 준비하여 판공성사 보낼것,
교무금 완납할 것

4. 첫 영성체 할 (1학년 이상) 어린이는 사무실에 신청
바람
 5. 첫 켈레7: 12월 2일<토> 오후 7시 30분
 6. 성우회 정기총회 12월 10일
- 지난주 봉헌금: 147,120원 평신도특별헌금: 37,4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애령주일: 10시미사 후 특별기도
 2. 가정발문: 13번 평화송-28일<낮>
 3. 가을 판공일정: 12월 5일-마음리, 6일 오전-석구리
8일 오전 광곡리
 4. 특보: 성인복사복(장백이) 4벌-은요한 기증
- 지난주 봉헌금: 38,325원

(술정미)

전화 ⑧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요안나 월례회: 오늘 미사후
(회원님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어른골 판공: 11월 3일, 양태수 형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3. 사도회 확대회: 다음주 1인 1세대 참석 바람
 4. 중·고생 성가 경연대회: 오후 3시 전동성당
중·고생 전원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4,89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준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2시
 2. 가정심방: 남노송동, 다가동, 기타동<화~금>
 3. 레지오 마리에 간부회의: 12월 2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4. 첫 영성체 교리: 月~土(2주간) 오후 3:30분
 5. 설가대원(어머니, 글로리아) 모집
연습: 어머니: 토, 2시, 글로리아: 목 저녁 7:30
- 지난주 봉헌금: 166,180 교무금: 200,100원

(파티마)

전화 ⑧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교적정리: 판공전에 교적정리 하시고 성사준비에 자
강없도록 유념하세요
 2. 사도회: 성탄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 어린이 주일학교: 12월 2일 2학기 교리시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 교리반에 귀여운 자녀
를 맡기세요
 3. 수녀원 살림준비: 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백혜리나-책상, 정루시아-옷장, 고젤마-이불
소울리아-전기밥솥, 김발렌티나-전자자
이어나-커피포트, 박루피나-커피벨트, 최야기다-
시계, 김분다-대야 외 3점. 이안나-짐통술
다음주 계속...
 4. 교무금: 미신인자는 11·12월분만 납부하세요
금주납입: 이현자, 서재걸(각1만원), 이옥희(9천원),
김판용(4천원), 이진희(4천4백원), 장영식(2천원),
김복남, 김종순(각 3천원), 오영길(1천원), 한순영
(5백원)
- 지난주 봉헌금: 32,865원